



아우는 강했다

‘기계체조 유망주’ 광주체고 1학년 문건영, 남자 고등부 우승

전국체전 무대에 처음 선 유망주 문건영(16·광주체고 1년·사진)이 대회 개막일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건영은 지난 7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남자 고등부 개인종합에서 78.101점을 얻어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우승했다.

문건영은 마루운동(12.567점), 안마(12.700점), 링(12.267점), 도마(13.967점), 평행봉(13.800점), 철봉(12.800점)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았다. 안마와 평행봉, 철봉에서는 1위에 올랐다.

‘도마 황제’ 양학선(30·수원시청)의 고교 후배이자, ‘체조 삼형제’의 막내인 문건영은 학교와 기문의 명예를 드높이며 한국 기계체조의 최고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의 형 문경록(21·경희대)과 문경수(19·공주사범대)도 체조 선수로 뛰고 있다.

문건영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여러 번 치렀지만, 전국체전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며 “다른 대회보다 떨어져 ‘실수를 최소화하자’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의 다짐대로 실수를 최소화한 문건영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문건영은 지난 8월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체조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압도적 기량을 선보였다.

문건영은 대회 남고부에 출전해 개인종합(76.200)1위, 안



마(13.267)1위, 도마(13.483)1위, 평행봉(13.967)1위, 링(12.033)3위를 차지해 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1학년 선수가 2~3학년 선배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월등한 기량을 선보인 문건영은 지난 제47회 KBS배 전국 체조대회에 이어 개인종합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문건영은 11월에 체코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니어 올림픽대회 예선 주니어 국가대표로도 참가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번은 없었다

전남체고 조민재, 역도 남고부 61kg급 2년 연속 3관왕

전남체고 조민재(3년·사진)가 이번 없이 2년 연속 전국체전 3관왕에 올랐다.

조민재는 지난 8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고부 61kg급에서 인상 113kg, 용상 145kg, 합계 258kg을 들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3년 연속 3관왕 역사를 썼던 조민재는 고교생으로 마지막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05kg을 든 조민재는 2차에서 113kg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용상도 1차에서 135kg, 2차에서 139kg으로 일찌감치 3관왕을 확정했고, 3차 시기에서 145kg을 들어 ‘플린’ 판정을 받았다.

조민재는 내년에 실업팀에 입단, 성인무대에 도전한다. 이번 체전에서 3관왕을 달성한 그는 이달 완도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신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다.

조민재는 대한민국 역도를 이끌 스타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2015년(오룡초 5년) 이은경·이정재 전남체육중 지도자의 권유로 무거운 바벨을 들기 시작한 조민재는 전국 역도 무대를 휩쓸고 있는 ‘특급 유망주’다.

2017년 전남체중에 입학해서는 처음 나선 제46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45kg급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떡잎부터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다.

이듬해 바벨 최대 중량을 높이기 위해 체급을 50kg으로 올린 조민재는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또다시 3관왕(인상 77kg, 용상 103kg, 합계 180kg)을 차지했다.

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고부 61kg급에서 인상(117kg), 용상(140kg), 합계(257kg) 모두 1위에 오르면서 3관왕을 달성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양예빈 ‘화려한 부활’ ...육상 400m 우승

여자 고등부 결선 56초55로 금 “믿어주고 응원해 준 팬들 감사”

대한민국 육상 차세대 스타 양예빈(18·전남체고)이 전국체전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슬럼프를 겪은 그는 2021년 8월 전남체고로 전학한 뒤 부상이 재발하는 등 고전했으나 당당하게 주종목인 4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양예빈은 지난 9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 육상 여자 고등부 400m 결선에서 56초5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양예빈의 라이벌 신현진(18·인원여고)은 58초30으로 2위를 했다. 이날 둘의 격차는 꽤 컸다.

양예빈은 계류중 재학 시절부터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았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7월에는 55초29의 400m 한국 여자 중학생 기록을 세웠다. 55초29는 실업, 대학, 고교를 포함해도 선수 기준 한국 역대 11위 기록이다.

대한육상연맹은 전체 기록과 선수 기준 기록, 두 가지로 기록을 구분한다.

하지만 양예빈은 중학교 졸업 후 피로 골절을 겪

었고, 이후 슬럼프에 시달렸다.

양예빈이 조금씩 기량을 회복한 건, 고교 2학년이던 2021년부터다.

2021년 여자 고등부 400m 랭킹 1위는 지금은 서울대학교 새내기인 박다운(당시 인천체고·56초11)이었고, 한 살 어린 양예빈은 56초63으로 2위에 올랐다.

박다운이 졸업하고, 양예빈이 기량을 회복하면서 2022년 여자 고등부 400m는 양예빈의 독주 체제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 때 기록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교 3년 개인 종목 일정을 마쳤다.

양예빈은 “중학교 때 기록을 아직 못 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털어놓으며 “부상이 재발하기도 했는데 모두 관리를 하지 못한 내 탓”이라고 했다.

자책하는 동안에도 양예빈을 기다리고, 응원하는 동료와 팬은 많았다.

양예빈은 “내가 기록을 내지 못하는 중에도 여전히 응원해주는 분이 많았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데 나를 믿어주셨다”며 “늘 힘을 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여러 상황을 잘 이겨냈다”고 고마워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30년 묵은 육상 100m 기록, 3년 안에 깰게요”

전남체고 이은빈 11초92 우승 “매년 0.2초씩 줄여 나가겠다”

이은빈(16·전남체고 1년)이 30년 묵은 여자 100m 한국기록을 경신할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다.

이은빈이 9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여자 고등부 100m 결선에서 11초92로 우승했다. 2위 신가영(17·경복체고)의 기록은 12초17이었다.

이은빈은 중학교 시절부터 주목받은 ‘단거리 유망주’였다. 중학교 3학년에 치른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에서는 100m, 200m, 400m 계주, 1,600m 계주에서 모두 우승했다.

고교에 입학해 이제 전국체전 무대에 선 이은빈은 자신의 대회 첫 종목인 100m에서 우승하며 다관왕 행진을 시작했다. 종전 12초02를 넘어서는 개인 최고 기록도 세웠다.

이은빈의 질주에 모두가 감탄했지만, 정작 자신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록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전국체전 여자 고등부 대회 기록(11초85·2011년 이선애)을 깨고 싶었다. 일단 오늘은 깨



이은빈이 지난 9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여자 고등부 100m 결선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인 처음으로 11초대에 진입하고, 전국체전 첫 종목에서 우승한 것에 만족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은빈은 올 시즌 초에는 발목, 무릎 부상으로 고전했다.

통증과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며 재활에 힘쓴 이은빈은 국내 스포츠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국체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이은빈은 “부상을 당한 뒤에 잘 뛰고 싶은 의욕이 더 커졌다. 회복하고자 재활 훈련을 열심히 했다”며 “올해가 끝나기 전에 100m 11초대에 진입

해 다행”이라고 했다.

이은빈의 ‘장기 목표’는 여자 100m 한국기록 경신이다.

여자 100m 한국기록은 1994년 이영숙이 세운 11초49다. 이은빈은 30년 넘게 깨지지 않은 기록에 언젠가는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은빈은 “매년 0.2초씩 기록을 단축하고 싶다”고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운 뒤 “11초대에 진입했으니, 한국 기록에 조금은 가까이 다가갔다. 매년 기록을 줄여나가다 보면 한국 기록도 눈에 들어올 것 같다”고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헝가리 피로스 광주오픈챌린저 단식 우승

광주테니스협회장 “미흡한 점 보완, 내년 대회 성공 위해 최선”

헝가리의 줌보르 피로스(세계 160위·왼쪽)가 남자프로테니스(ATP) 2022광주오픈챌린저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줌보르 피로스는 지난 9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전에서 에라도르의 에밀리오 고메스(102위·오른쪽)를 2-0(6-2, 6-4)으로 꺾고 우승했다.

피로스는 지난 7월 핀란드에서 열린 탐페레챌린저(CH80)에 이어 두 번째 챌린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피로스는 우승상금 7200달러와 80점의 랭킹포

인트를 확보했다.

피로스는 이번 대회에서 첫 하드코트 우승을 달성했다.

그는 ITF 국제대회를 포함해 총 7차례 클레이 코트에서 열린 프로 대회에서 우승했다.

피로스는 이날 1, 2세트 모두 상대 첫 서비스게임을 따내며 승기를 잡은 뒤 1시간 20분 만에 승부를 매듭지었다.

지난 8일 열린 복식 결승에선 이번 대회 복식 1번 시드인 미구엘 앙헬 라에스-바렐라(멕시코·세계복식랭킹 67위)와 니콜라스 바리엔토스(콜롬비아·

63위)가 인도의 유키 밤브리(102위)-사케시 미네니(89위)를 2-1(2-6, 6-3, 10-6)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미구엘 앙헬 라에스-바렐라와 니콜라스 바리엔토스는 앞서 열린 ATP250 코리아오펜에서 준우승했다.

한국 국가대표 남성성(세종시청·590위)은 지난 7일 남자 단식 8강전에서 톱시드 에라도르의 에밀리오 고메스(102위)에게 1-2(1-6 6-1 1-6)로 패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성남 광주테니스협회장은 “호남권 테니스 국제대회로는 광주대회가 유일인데 일부 낡은 시설과 경기운영 등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면서 “내년 대회는 전부분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공조2: 인터내셔널, 정직한 후보2
2관	정직한 후보2
3관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컴백홈
4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5관	인생은 아름다워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9관	공조2: 인터내셔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핀 버전'
7관	씨네캐슬 정직한 후보2, 스마일
8관	씨네캐슬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스마일,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트리오 오원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일시: 2022. 10. 1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가을 저편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일시: 2022. 10. 12.(수) 19:30

장소: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062-613-8245

즐거움

문화 산책